

[경제]

환율 폭등 ... 금리 추가 인상론 '술술'

중소·서민 가계 고통 가중

최근 환율이 폭등하면서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환은 물가를 잡기 위해 1년 만인 이달 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약효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환율 급등이라는 복병이 불거져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금리 추가인상은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의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급등에 기준금리 인상효과 반감 =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환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올릴 때만 해도 시장과 전문가들은 연내 추가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또 올리면 가계·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데다 물가불안의 주변인 국제유가도 배럴당 120달러 밑으로 떨어져 안정세로 접어들 듯 보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가

하지만 지난 7일 1,016.5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26일 현재 1,080원대로 64원 이상 치솟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환율급등은 물가 상승세를 부채질해 기준금리 인상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환은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 오르면 물가는 0.02% 포인트 상승하지만 환율이 1% 상승하면 그 4배인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물가 상승세가 8월 이후에는 꺾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면 금리를 통해 물가상승을 방어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둔화가 걸림돌=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를 올릴 이유보다 동결할 이유가 아직까지 더 많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가

나 어려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도 경기둔화를 이유로 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소장은 "물가 및 환율상승세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려는 유인이 있지만 경기둔화가 현저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고통은 가중된다. 중소기업의 7월말 은행대출 잔액은 395조3천890억원에 이르고 가계대출은 379조2천306억원이나 된다. 또 9월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할 때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연합뉴스



'잉크 먹는 달팽이'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대표 황유천)는 27일 용산 CGV에서 자사의 친환경 슬리드 프린터(모델명 : Phaser 8560)의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 천연소재의 고체 잉크' 홍보를 위해 '잉크 먹는 달팽이'라는 이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포스코·GS

현대중·한화

대우조선 인수 4파전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예상대로 포스코와 GS, 현대중공업, 한화가 뛰어들어 4파전이 펼쳐지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포스코와 GS, 현대중공업, 한화가 서류를 제출했다. 대우조선 대주주이면서 매각 주관사이기도 한 산업은행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투자 적격성을 확인한 뒤 9월 둘째주 예비입찰을 받을 예정이다. 예비입찰 때는 경영 계획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자금 조달계획, 인수 금액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입찰자들은 전산을 통해 재무제표와 각종 문서를 살펴보고 실사를 한 뒤 10월 중순에 본입찰에 참여해 구속력 있는 가격과 향후 경영 계획 등을 적어 내게 된다. 산업은행은 10월 중 우선협상자를 발표한 뒤 현장까지 방문하는 상세 실사 등을 거쳐 연내에 최종 매각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대 추락

경제연구기관 잇단 전망 만 달러를 돌파했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 달러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부 환율 전망치를 연평균 1,010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조만간 연 평균 환율 전망치를 현재 983원에서 1,000원 위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연평균 환율이 1,0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작년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1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평균 환율은 26일 현재 996.40원으로 1,0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추계인구가 작년보다 15만 명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감안할 경우 연평균 환율이 1,000원을 넘어서면 1인당 국민소득의 1만 달러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다단계 업체 8곳

상반기 문 닫았다

올해 상반기에 다단계업체 8곳이 문을 닫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자료를 통해 조앤바인과 엘지생활건강, 디엠에스아이엔지, 케노스코리아, 뷰티플레이프, 하이엔비, 금천네트웍, 윈플러스사 상반기에 폐업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상호 등 주요 정보가 자주 변경되는 업체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환율 5일만에 하락 1,084원

당국 고강도 개입 ... 10억달러 투입 추정

원·달러 환율이 장 중 1,090원대로 치솟은 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급반락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5.30원 떨어진 1,084.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1.60원 상승한 1,091.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092.50원으로 오른 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매물이 나오면서 1,088.50원으로 밀렸다. 이후 수입업체의 결제수요 유입으로 1,090원 선으로 복귀해 공방을 벌이던 환율은 당국 개입으로 1,079.00원까지 급락한 뒤 저가인식 매수로 1,084원 선으로 상승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이 개입 강도를 강화하면서 환율을 하락 반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국의 개

입 규모는 1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외세력이 1,09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에 나서면서 당국에 힘을 실어줬다. 일부 참가자들의 손절매도가 촉발되면서 환율이 한때 1,070원대로 밀리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주시매도분 역송금 수요 등이 유입되면서 1,070원대 하락을 제한했다. /연합뉴스

추석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 '불안'

배·닭고기 등 급등 수품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26일 현재 신고 배 10개(중품)의 가격은 1만4천333원으로 전날인 25일(1만3천250원)과 비교하면 하루만에 8.2% 급등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추석성

현재 5천33원으로 전날(4천780원)에 비해 5.3% 올랐고, 고등어 30cm 1마리(생산) 가격은 같은 기간 2천993원에서 3천168원으로 5.8% 상승했다. 오징어 25cm 1마리(방통)의 가격은 921원에서 945원으로 2.6% 올랐고, 고랭지 무(상품) 1개의 가격은 전날에 비해 0.4% 오른 1천390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Good Hearing Aids' (좋은보청기)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various hearing aid models. Text includes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본점 (062)227-9940 and 총장점 (062)227-997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dong Sang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일가공인중개사' (Ilga Gongin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OME CON 흥켄 不動産 리서치' (Home Con Real Estate Research)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당부동산' (Geum-dang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